

건축의 구조적 정직성

The Structural Honesty of Architecture

건축사 / 함인선(인우건축)

대담자 / 이은석(경희대 건축공학과 교수)

일시 / 2000년 3월6일 10시

장소 / 인우건축 소장실

이은석___ '건축은 반역이다' 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부터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건축은 반역이다' 라는 제목 자체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으며, '아방가르드 형식' 또는 'new frontier 정신' 과 관계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우리 나라의 많은 건축가들은 항상 '안전' 에 대한 조심성 때문에 자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 특히 구조적인 부분에서 두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의 구조사무실들과 많이 이야기 해보니 당연히 가능한 계획인데, 한국에서는 왜 그것을 안 된다고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함 소장님은 우리 나라 건축디자인의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진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구조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함인선___ 토목구조물의 경우는 구조적인 결과가 바로 형태적인 것을 결정하지만, 건축물에 있어서 구조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건축구조에는 구조적 잉여(structural redundancy)가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축가의 상상력을 제한시킬만한 불가능한 구조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구조는 건축가가 원하는 형태나 공간을 보강(reinforcing)해주는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조에서의 난점이라 한다면 기술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조적으로 너무 솔직하다 못해 노골적인 구조가 될 때의 건축미학적 문제입니다. 구조가 노출되는 건축 디자인에 있어 구조 요소가 어떻게 전체 디자인에 통합될 수 있으며, 디테일이 자체적인 미적 완결성을 얻느냐가 어려운 문제이지,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담장경 (왼쪽:이은석, 오른쪽:함인선)

이은석___ 작품들을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볼 때 그 자신감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 소장님 본인은 소위 '하이테크' 건축가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함인선___ 하이테크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초기 하이테크는 모더니스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테크놀로지를 이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기술로 인해 인간은 노동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로 인해 더 나은 평등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신념하에 기계를 중요한 메타포로 사용한 것입니다. 대량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구조 자체가 그대로 구조이면서 입면의 장식이 되고, low cost를 실현하려 하는 노력이 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후기 하이테크는 구조가 지나치게 장식적이 되면서 매너리즘의 경향을 띠는 것 같습니다. 비용도 당연히 비싸집니다. 저의 경우, 초기의 하이테크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석___ 함 소장님이 작품에 임하는 자세는 기술이 건축의 노예로서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건축의 하이테크적 요소가 장식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인데, 혹시 본인 작품 속에 후자와 같은 측면이 없는지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함인선___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노꼬레의 첨탑부분이나 제자교회의 옥상 구조물은 구조적인 의미는 없으나, 매스의 완결성을 갖추어 주는 스크린으로서 기능하는 장식적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가 아닌가가 장식이나

아니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장식이 문제인 경우는 그것이 과도할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검소함을 위하여 출발했을 노출구조가 오히려 더 비싸진다든지, 현란한 디테일에 의해 깊이 없는 건축적 내용을 은폐하려든지 할 경우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 건축에 있어 구조나 디테일은 하이테크 건축가들이 요즘 흔히 사용하는 비싼 디테일들이 아닙니다.

이은석___교회 종탑을 예로 들면 그것은 장식이지만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상징적 의미 자체가 분명히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교회가 체육관이나 오디토리움과 같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적 내용을 위해 가해지는 장식 이외의 건축적인 부분은 실제적인 기능과 구조의 필요에 의해서만 합리화가 된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함인선___그렇습니다. 예컨대 두 형강이 결합을 한다 했을 때 볼트 숫자만 맞추어 무심하게 결합시킬 수도 있고, Viollet-le-Duc이 철골의 결합점을 인체의 관절로 보았듯이 그 조인트가 미학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의 장식화는 이런 범위 내에서만 타당성을 가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출되는 구조는 지나치게 노출적이지도, 지나치게 장식적이지도 않은 그 중간의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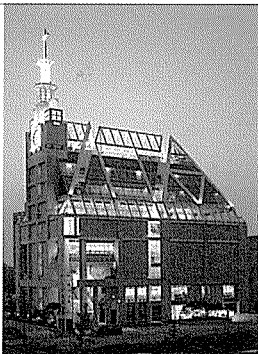
이은석___부평 순복음 교회에서 긍정적인 점은 기존 공장 건물을 활용했다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새 구조체를 결합시키는 데 있어 어떤 점을 고려했는지, 구조적 문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함인선___공장으로 쓰던 기존의 2층 RC 구조 위에 두 개 층이 더 올라가야 했으므로 새 구조는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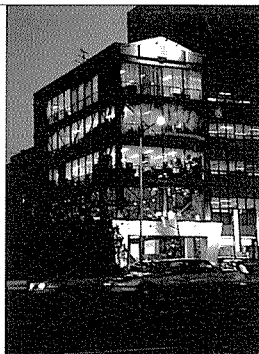
급적 가벼워야 했고, 더구나 증축 부분이 장스팬을 요구하는 회중석이다 보니 구조적으로 난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벽돌 마감 건물을 어떻게 하면 새 디자인과 유기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해결안은 본당부분은 기존 건물 벽의 연장으로써 닫힌 공간으로 만들고, 그 앞쪽의 로비를 싸는 외벽은 투명한 스킨을 가지게 하므로써 이중 피부를 가지게 하자는 것이었죠. inclosed된 본당의 외벽은 기존 건물의 재료인 벽돌이 되고, 투명한 새 skin은 가는 철골과 유리를 이용하여 투명성이 최대한 확보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은석___기존의 공장의 벽돌 벽체를 하나의 문맥으로 인정하고 유리 스킨 안에 있는 교회의 파사드를 결정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고, 그것이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모더니스트들이나 하이테크 건축가들의 가장 큰 약점이 컨텍스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과 더불어 의사소통 가능성에 대해 무력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여기서는 어떤 대안을 내었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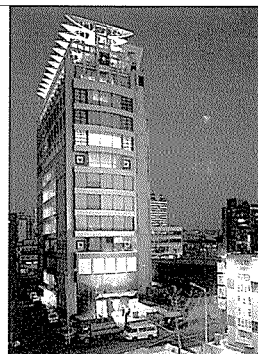
함인선___이 교수도 교회 건축을 의뢰 받으면서 가장 먼저 듣는 이야기가 “교회답게 해달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교회답다라고 할 때 아마도 붉은 벽돌과 뾰족탑이 아이콘이라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모더니스트의 입장에서 보면 계도의 대상일 것입니다. 모더니스트들이 자기들만이 알 수 있는 추상적인 미학이나 순수공간을 대중들에게 강요하며 따라오라고 했지만, 사실상 대중들은 그것에 대해 소외감만 느낄 따름이었습니다. 이 교회에는 어쨌건 붉은 벽돌과 뾰족탑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직설적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썼지만, 교회임을 알리는 장치로 나름대로 의사소통에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자교회



청운빌딩



우노고레

이은석__ 콜린 데이비스는 하이테크 적인 요소가 glorification of technology, omniplatz, mass production, plug-in-pod, 즉 기술에 대한 찬미, 하나의 큰 면적을 가지고 나누는 것,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만드는 재료나 디테일의 사용, 화장실이나 디테일 한 부분을 끼워 넣는 것 등으로 보았는데, 뒤의 세 가지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아이디어가 이번 교회에서도 적용이 되었습니까?

함인선__ 기존의 분절이 많은 건물을 새로운 피부가 전체적으로 덮었다는 면에서 결과적으로 omniplatz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조재를 비롯한 주요 마감재는 대량 생산된 조립식 부재라는 면에서 또한 구조모듈에 의해 반복 적용이 되고 있다는 면에서 mass production도 적용된다 할 수 있습니다. 반면 renovation을 하는 건물이다 보니 plug-in-pod가 적용될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plug-in-pod를 얘기하는 것이 결국 건물의 life cycle에 적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물의 기대 수명을 연장시키려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renovation 자체가 그것에 공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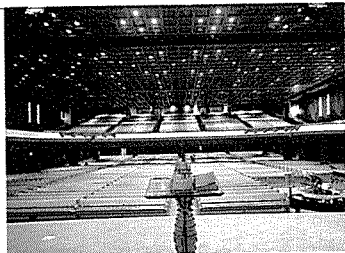
이은석__ 실제로 이러한 면들이 건축 시공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까?

함인선__ 이 프로젝트에서도 다소의 효과가 있었지만 최근에 완성한 분당 소망교회의 경우는 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등을 사용해서 평당 100만원이 들었습니다. 건축비용 초기비용 뿐 아니라 유지비용과 그 건물의 수명이 끝났을 때의 폐기물 처리비용까지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절감하려는 노력이 기울어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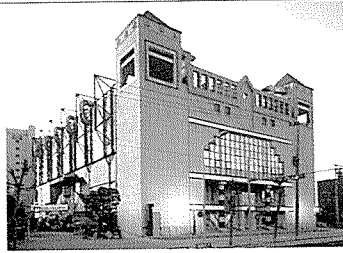
이은석__ 지금까지 기본적인 건축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는데, 교회로 좀 더 들어가서 함소장님은 교회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신교교회와 구교교회의 성당과의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함인선__ 신교 교회는 개신교 자체만큼이나 자기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일은 외재화되어 있던 신을 내재화시킴으로 일체의 제도적 형식적 틀을 없애는 것이었는데, 사실 이로써 교회당의 건축역사도 종말을 맞은 것입니다. 각자가 신의 처소인 성도가 모이면 그 자체가 교회가 된다는 원칙대로라면 개신교에는 교회당이 필요없는, 오히려 교회같은 교회가 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더니스트들의 균질적 공간, 보편적 형태가 가장 개신교적인 교회에 적합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상징이 없는 교회가 참다운 개신교적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상징과 비의, 외적 형식을 통하지 않고는 종교체험을 할 수 없는 인간은 '교회 같은 교회'를 원한다는 자체가 자기 모순이 아닌가? 이것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딜레마와도 관계된다 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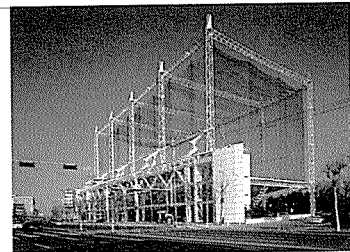
이은석__ 종교 개혁가 Calvin은 교회 안에 강연하는 테이블 외에는 아무 것도 놓거나 붙이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칼빈이 설교했던 곳에 가보면 장식이 많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 정도는 아무 것도 없는 편에 속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이러한 설명은 건축주가 건축가에게 해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자교회를 보았을 때, 철골이 노출된 구조적으로 정직한 건물도 아니고, 외부의 재료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실내의 프로그램 등 제가 본 교회 건물 중 가장 필요로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사치스러운 교회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는 개신교에서 최대의 덕목으로 치는 근검, 절약의 측면에서 모순



성락교회 본당



성락교회 본당



청학빌딩

이 아닌가? 검소함에 대한 가치와 신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한 사치 이 대립을 어떻게 조율하고 있으신지?

함인선 ___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저는 '과연 그것이 건축가의 몫인가'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제자교회처럼 평당 500만원이 들어간 교회에서부터 분당 소망교회처럼 평당 100만원의 교회까지 해보았지만, 건축주가 좋은 교회를 원한다는데 건축가가 사회를 생각해서 공사비를 줄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아주 값싼 교회를 원하는데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건축가의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건축가의 카운터파트는 건축주라기보다는 건축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이 주어졌다고 하면 그 중 얼마를 효용성 있는 곳에 쓰고, 얼마를 장식에다 쓰느냐하는 배분의 문제이지, 500만원을 절약해 선교비용으로 쓰라고 하는 것은 건축의 몫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은석 ___ 교회건축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념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평당 1000만원 이상 되는 아파트를 설계할 기회가 있었는데, 100평 미만인데, 20억 정도로 분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 보다 훨씬 값싼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돈을 조금 들어서 깨끗하게 지으면 온갖 지탄을 받는데 이것은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교회도 본래의 사명을 잃지 않는다면 자기 삶의 수준 정도의 공간을 갖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개신교적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히 가난한 척, 누추한 집에 사는 척 하는 것은 더 우습고 가증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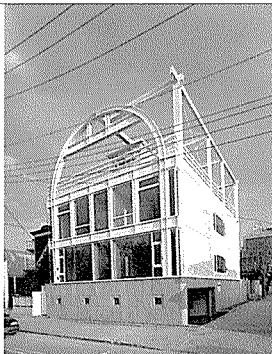
함인선 ___ 그러한 지탄을 받는 것은 아마도 이 시대의 교회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교회당 건축을 통해 과시

를 하려고 하고, 교회당을 백화점 같이 일종의 마케팅 수단으로 여기고, 그러다 보니 자본에 예속이 되는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 이런 것은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가가 주어진 예산 속에서 건축적 양심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듯이 교회는 교회 자체의 양심에 따라 자산을 배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재산의 몇 %를 건축에 쓰고, 몇 %를 봉사하는데 쓰느냐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회의 양심에 따르는 것이지 검소한 교회의 획일적인 잣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석 ___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지, 비싼 교회는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상당히 편협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의 구조적 정직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척을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앞으로도 이 특성을 충분히 잘 유지하시면서 더 근본적인 부분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건축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락교회
교육관



신사동
주택



태신빌딩